

불임증이나 성기능 장애 유발

8.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

미 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흡연자들이 비인슐린 - 의 존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비흡연자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9. 생체 면역계에 이상을 일으킨다.

흡연에 의해 생체의 면역계가 현저하게 저해된다는 유력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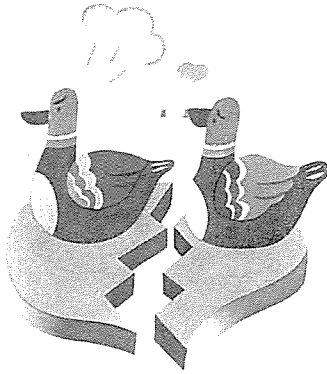
메사추세츠 종합병원과 하버드대학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흡연자에서는 혈중의 T세포의 이상이 발견되었다.

T세포는 생체가 암, 기타의 질병과 싸우는 힘을 컨트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특히 대량 흡연자는 소량 흡연자에 비해 이상을 나타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10. 불임증이나 성기능 장애를 일으킨다.

흡연이 불임증이나 성기능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흡연으로 인한 동맥경화로 고환 동맥과 음부 동맥의 혈류가 부족해서 남성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고 특히, 고환 동맥은 대동맥에서 직접 나오는 혈관이어서 입력이 매우 높은 동맥



인데, 동맥 경화로 인해 혈관 벽이 좁아지면 그만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생식능력이 이상이 오게 된다.

또 성 기능에 중요한 물질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혈중 호르몬을 감소시키며, 정자의 발육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음부 동맥은 남성 성기에 혈류를 공급함으로써 발기를 용이하게 하는데, 이곳을 흐르는 혈류가 부족하게 되면 발기가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성욕이 감퇴하기도 하고 발기 불능으로 불임이 되는 수도 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흡연자와 비 흡연자의 정액을 비교한 결과 대체로 흡연자의 정액에서는 정자의 발육이 저하되고 있었으며, 정자의 운동성도 낮아져 담배가 불임의 한 원인

임이 확인되었다.

즉, 담배는 생명의 탄생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11. 구취가 심해진다.

일단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게 되면 구취가 심해진다. 이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흔히 경험한다. 이는 폐의 세포에 독한 냄새의 담배 성분이 자리를 잡고, 숨을 쉴 때 구취를 유발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담배의 어떤 성분은 혈액으로 흡수되어 구강 내의 조직까지 퍼진 후 숨을 내쉬게 되면 공기와 혈액이 교환되고 담배 성분이 밖으로 빠져 나가면서 심한 냄새를 풍긴다.

그리고 치아나 틀니, 입안에 끼워져 있는 보철물에 착색을 일으켜서 심미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진한 갈색을 띠는 착색은 처음에는 치아 표면에만 생기나 시간이 지나면 치아의 내부까지 침투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스케일링을 통한 간단한 치료로는 제거할 수 없게 된다. 착색은 담배의 양보다는 구강 상태가 나쁜 사람일수록 더 잘된다. **72**